

※ 이 기사는 2016년 4월 20일자 닛케이비즈니스에 게재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출처: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110879/041900318/?P=1>

3000 명의 유학생을 두고 어떻게 지진에 대처했는가?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교 이마무라(今村) 부총장에게 듣는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지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오이타현 벳부시(大分県別府市)에 진도 6 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지난 4 월 16 일 심야 1시 25분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4월 14일에 쿠마모토현(熊本県)에 진도 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현재까지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오이타에서도 종종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이타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진도 6 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벳부시내에 있는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책장의 모든 책들과 식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진발생 후 저를 포함한 APU 모든 직원들은, 곧바로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긴급연락망을 통해 현황 파악과 필요한 대응 등을 확인하였고, 각 부서가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가장 걱정이었던 것은 물론 학생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과, 벳부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들이 무사한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안전확보와 신변확인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먼저 기숙사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APU 캠퍼스는 벳부시내에서 떨어진 산 위에 있고, 재학생 5,974 명 (2016년 4월 현재) 중 약 1,200 명의 학생이 "AP 하우스"라고 불리는 캠퍼스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뒤, 캠퍼스 관리직원과 RA(레지던트 어시스턴트)라는 선배학생들의 유도로, 기숙사에 있던 학생전원을 일단 가까운 캠퍼스 주차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았고, 피난훈련을 실시한 경험도 있어서, 학생들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행동해 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숙사에 살지 않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신변확인을 하였습니다. APU 에는 인터넷 상에서 대학측과 학생이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트라넷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진발생 후 인트라넷을 바로 가동시켜, 학생과 교직원들의 신변확인을 하였습니다. 학생에 관해서는 재학생 5,974 명 중 약 4,000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은, 그 후의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는 극히 적었으며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경상 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쿠마모토 출신인 재학생 180 명에 대해서도, 쿠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시점에서 바로 인트라넷으로 신변확인을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부모로부터 문의가 쇄도

4 월 16 일 아침부터는, 일본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학생 가족분들께서 걸어 주신 문의전화나 이메일이 쇄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자녀분의 신변확인과 대학의 상황, 지진의 여파, "다음 주부터 수업을 재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등이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본 쿠마모토현의 보도에 충격을 받으시고, 또한 동일본대지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일본을 막론하고 세계 여러 곳의 가족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을 일단 후쿠오카현(福岡県)으로 대피시키고 희망자는 귀국시키고 싶다고 하여, 타이나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버스를 대절해서 학생을 오이타현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는 뒤에, 인도네시아대사관이나 한국영사관에서는 대표 관계자가 직접 대학교까지 신변확인차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스리랑카, 부루네이, 몽골, 대만에서도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의 자매대학과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위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4 월 16 일 오후 APU 에서는, 그 다음 주인 18 일부터 20 일까지의 휴강을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진직후부터 벳부시내에서 살고 있는 학생 대부분은 시내 곳곳에 설치된 피난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특히 16 일밤과 여진을 가장 경계하였던 17 일밤에는, 약 천여명의 학생이 각 피난소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반수가 APU 학생인 피난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야에 일어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게 밤을 지새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전교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학생들 중 대부분은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진도 6 의 큰 지진을 접하게 되었으니, 평상시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일본에 적응했다고 하지만, 결국 여기는 자국어가 통하지 않는 이국 땅입니다.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거나 앓을까 걱정이 된 저와 직원들은, 주말동안 학생들이 있는 피난소를 찾아 다녔습니다.

다수의 유학생들이 피난소에서 협력한 일은 재해사상 처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도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난소의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도 유학생들도 "처음 당하는 대지진이어서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포와 그 밖의 물자를 운반하기도 하는 솔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자서 피난을 나오신 어르신께 말을 걸며 위로를 전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난소 사무국의 한 직원분께서는 "APU 의 학생들은 모두 메너가 좋고 친절해서 힘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벳부시에는 유학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난소에서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등 "지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천명의 대학생이 생활하고 있고, 더욱이 그 중 절반이 유학생이라는 벳부시의 경우를 보자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을지는 모르나, 피난소에서 시민과 학생이 협력하여 큰 사고도 없이 위기를 넘겼다는 것은, 특히 국적이나 언어가 다르더라도 힘을 합하여 서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일본의 재해사상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제가 큰소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일본어를 할 줄 몰라 피난소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유학생이 있었다", "일부 메너없는 학생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APU 의 학생과 벳부시가 얻은 경험은, 일본이 앞으로 다문화공생사회를 실현해 가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월 19 일 현재의 벳부시 상황입니다만, 건물붕괴 등의 막대한 피해도 없고, 18 일 월요일에는 대부분 안정을 되찾았으며, 이미 시내의 학교나 유치원은 수업을 재개했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그리고 온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각지로부터 벳부시까지의 교통은, 비행기에서 철도, 자동차까지 문제없이 운행 중에 있으며, 시내교통도 평상시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 수도, 가스 등 라이프라인에 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캠퍼스 상황은, 일부 지면이 뜨거나 벽의 타일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식당이나 그 밖의 시설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관해서도 서가의 책들이

떨어지는 정도의 피해로 그쳤습니다.

물론 여진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있었습니다만, 벳부시내나 캠퍼스에서의 생활은 평온을 되찾았고, 수업재개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APU 는 25 일 월요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휴강을 21 일, 그 후에는 22 일까지 계속 연기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APU 학생 대부분이 국외나 일본 각지에 광역피난 중인 상황을 고려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진의 영향과 휴강으로 연기되어 왔던 취업설명회도 가능한 한 개최할 계획이고, 과외활동 등의 캠퍼스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국제대학인 APU 가 지진의 영향을 받아, 일본과 해외의 젊은이들이 지진을 직면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학측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급히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대학과 교원, 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사이에서, 학내 인트라넷을 더불어 대학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을 통해서 정보발신과 공유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피난소의 지시 등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피난정보나 연락 등을 되도록 신속하게, 되도록 많이, 일본어와 영어로 발신하는 것입니다. APU 에서는 해외사무소와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지원해 갈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학생에 대한 지원

앞으로는 지진재해에 의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학생이, 대학생활, 시민생활을 원활히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체제나 지원체제를 더욱 보완해 갈 생각입니다. 또한 방재대응에 대해서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시내에서의 피난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행정이나 시민단체들과도 공유하여, 연대를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이번 지진의 여파로 APU 에서는, 내년도 이후의 해외 유학생과 국내 학생모집에 영향이 미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국내외의 졸업생으로부터 모교에 대한 지원과 협력호소가 일찍부터 다수 모이고 있습니다. 재학생들도 쿠마모토지진 모금활동을 기획하는 등 지원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벳부시에서는, 황금연휴로 불리는 골든위크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호텔이나 여관 등의 예약이 계속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벳부시 관계자 여러분의 힘을 합하여, APU 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 하나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실은 지진이 일어난 1 주일 전인 4 월 11 일에, APU 는 동일본대지진에서 피해를 본 미야기현의 계센누마시(宮城県気仙沼市)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지방창생의 길을 모색하는 공동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계센누마시를 구체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진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번의 지진이 순식간에 많은 것을 파괴해 버리기도 합니다. 막상 당사자가 되어보니, 지진이 상징하는 무서움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식을 쌓기 위해 이곳에 모인 그 열정을, 10 여년간 졸업생들이 만들어 온 APU 만의 교육의 등불을, 단지 지진으로 인해 꺼트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APU 는, 지진과 그 어떠한 재해에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문에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